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 운영 촉구
결의안

(오은옥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 운영 촉구 결의안 (오은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46
----------	------

발의연월일 : 2025. 7. 22.

발 의 의 원 : 오은옥, 권성현, 김경희, 김묘정, 문순규,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정순옥,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홍용채 의원(16명)

찬 성 의 원 : 이원주, 전홍표 의원 (2명)

1. 제안 이유

- 한국지엠은 2018년 계약에 따라 2027년까지 국내 공장 운영을 약속했으나, 최근 창원정비센터 등 자산 매각을 추진하며 철수 우려를 키우고 있음
- 2024년 기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수출액은 약 36억 달러에 이른다는 점에서 철수 또는 생산 축소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 전체 산업과 고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이에 한국지엠과 정부, 한국산업은행에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해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함

2. 주요 내용

- GM 본사는 2018년 체결한 계약 이행에 적극나서고, 지속적인 창원 공장 운영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
- 정부는 창원공장의 수출 기여와 2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엄중히 인식하고, 한국지엠의 생산 축소나 철수를 막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한국산업은행은 GM 본사의 투자 약속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창원공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주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3. 건 의 문 : 붙임

4. 수 신 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한국산업은행회장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 운영 촉구 결의문

한국지엠은 지난 2018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2027년까지 국내 생산시설 유지를 조건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7억 5천만달러의 투자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계약 만료를 불과 2년 앞둔 2025년 5월, 한국지엠은 창원정비센터를 포함한 일부 자산의 매각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은 다시 구조조정과 공장 철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창원공장은 2018년 구조조정 당시 조립부 통합과 대규모 희망퇴직을 통해 고통을 분담한 상징적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산 매각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수출액은 약 36억 달러로, 이는 창원시 전체 수출액(228억 달러)의 15.7%를 차지하는 것이다. 현재 협력사를 제외한 직접 고용 인원은 약 2,800명이며,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관련 종사자는 약 2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지엠의 철수 또는 생산 축소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 전체 산업과 고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창원시민을 대표하는 창원시의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GM 본사는 2018년 체결한 계약 이행에 적극 나서고, 지속적인 창원공장 운영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창원공장의 수출 기여와 2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엄중히 인식하고, 한국지엠의 생산 축소나 철수를 막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한국산업은행은 GM 본사의 투자 약속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창원공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주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2025년 7월 일

창 원 시 의 회